

# 濟州牧의 官衙施設

金 東 棼\*

## I. 머 리 말

官衙는 官廳·官署라고도 불리며, 크게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관아는 다시 관찰사가 道の 行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監營과 郡縣의 守令이 해당 邑을 다스리기 위한 관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중앙의 경우, 최고통치자인 왕이 거주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중앙관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현의 경우는 수령의 관아인 東軒을 중심으로 많은 관아시설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궁궐이 중앙통치의 산실이라면 지방통치의 산실은 동헌이라 할 수 있다.

觀德亭 부근 일대는 옛 大村縣 지역으로 조선시대 제주목의 관아가 집중 분포했던 곳이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탐라국의 관아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1)</sup> 이 지역은 1416년 제주도가 제주목·대정현·정의현으로 구획될 당시 제주목의 本邑으로 정해지면서 더욱 번성하였고, 후에 面里制가 발달하면서 제주목 中面의 一從里·二從里·三從里로 나누어졌다.

1105년(숙종10) 탐라국의 해체로 제주도는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고,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 후 1295년(충렬왕21)에 제주가 州邑으로 승격되면서 목사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제주목의 관아시설을 살피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려후기부터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현존하는 문헌으로서는 1435년(세종17) 이전의 관아시설에 대한 추정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일대의 발굴성과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 II. 관아건물의 개요

\* 제주대 강사·한국사

1) 李膺鎬는 「千羅國紀」에서 탐라국시대 성주치의 위치를 「조선조 세병헌이 있던 곳으로 左右紫電 靑霜庫가 있었고, 지금은 우편국 자리가 되었다」라 하여 現제주우체국 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레 흥정표 역시 「七星臺와 七星廳」(『耽羅星主遺事』, 고씨종문회 총본부, 1979.)에서 古老들의 구전을 종합해 볼 때 성주청의 있었던 자리는 1903년 濟州郵便受取所, 1905년 木浦郵便局出張所, 1907년 濟州郵便局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헌상으로 볼 때 1435년(세종17)은 제주목 관아건물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것은 高得宗의 「弘化閣記」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략〉 公(당시 都安撫使兼 判牧師인 崔海山을 지칭함 : 필자주)은 人和를 돈독히 하고, 무너진 官廬를 수리하고자 하여 그 일을 중히 여겼으나 틈을 내지 못하였다. 때마침 관청에 불이 나자 거처할 것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머리짚은 죄수와 짚을 서는 사람들만을 동원하여 무너진 절간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세우니 거문고 타는 방과 욕실·부엌·낭사를 갖추고, 조금 서쪽에 집 三楹을 세워 政事를 보는 堂으로 하고, 좌우에 각각 곁채를 마련하여 방을 마련하니 독서하는 곳이다. 또 그 서쪽에 三楹을 세우고 겹쳐마루 보충하니 규모가 굉장하고 정밀하며 제도가 아름다워 가까이에서 보면 크고 높아 보이고, 바라보면 으리으리하여 빨간색을 칠하여 단장을 하니 볼 만하였다. 그 남쪽에 半刺의 堂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굿간을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만들어 진상할 물품을 저장하고, 그 남쪽 밖에 따로 樓門을 지어서 밑으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아 시간을 알리는 설비를 갖추었다. 동쪽의 藥庫와 서쪽의 藏所가 동서로 대치하게 하여 모두 담을 두르니 돌은 잘 다듬어져 견고하였다. 집 수는 모두 206間인데 집마다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으니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까닭이다.〈하략〉」

라 하여 이전의 관아건물이 화재로 소실하고, 거의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弘化閣을 건립하면서 鐘樓, 寢室, 浴室, 讀書房, 琴堂, 政堂, 藥庫, 藏所, 廓舍, 營庫 등 모두 206間的 건물이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工役은 죄수와 짚을 서는 사람을 동원하였고, 재료는 島內 무너진 사찰의 재목과 기와를 이용하였다. 공사기간은 최해산 목사의 도입이 1434년 10월이고 「弘化閣記」가 쓰여진 것이 1435년으로 감안해 볼 때 수개월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동원된 인원수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재목과 기와를 가져온 무너진 사찰이 어느 사찰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鐘樓에 달았던 鐘이 妙蓮寺의 종이라는 것으로 보아, 무너진 사찰은 제주성에서 서남 20리에 있던 묘련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기할만한 점은 후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을 서로 닿지 않도록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장을 쌓았다는 것이다. 어떠한 현재 문헌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 관아건물의 골격은 이 당시 형성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주요 관아건물은 이설없이 한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제주목 관아시설의 개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제주목 관아시설의 규모·위치·기능〉<sup>3)</sup>

전각명	규모 (間)	상대적 위치	기 능	비 고
瀛洲館	35	北城內	客舍	현 북국민학교 위치
弘化閣	9	延曦閣 남쪽	안무사영→절제사영→영리청	제주지방법원 舊地
愛梅軒	8	弘化閣 동쪽		
右蓮堂	10	弘化閣 남쪽	연못	金政의 享儀室記 전함
贊壽軒		觀德亭 남쪽	판관이 안부를 묻는 곳	

2) 李元鎮, 『耽羅志』, 濟州 宮室條

3) 1704년 이형상에 의해 편찬된 『南宦博物』, 註解條의 전각명과 규모를 기본으로 하고, 상대적 위치 및 기능은 다른 邑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전각명	규모 (間)	상대적 위치	기능	비고
運籌堂	9	東城 위	군사적인 방어소, 관리의 휴식처	黃祐獻記, 申纘序
上衙	37	弘化閣 북쪽		
延曦閣	14	弘化閣 북쪽	上衙의 동헌	李源祚의 記 전함
養心堂		望京樓 밑		
二衙	47	南城 안		
察眉軒		二衙 북쪽	二衙의 外東軒	제주의료원 舊地
生白軒		二衙 동쪽	二衙의 內東軒	후에 현 동국민학교로 이전
橘林堂	5	延曦閣 동쪽		
營軍官廳	31	哀梅軒 동쪽	軍官의 所處	
牧軍官廳	8	二衙 동쪽	軍官의 所處	
鎭撫廳	7	左衛廊 內	鎭撫의 所處	
營作廳		右衛廊 서쪽	戶長, 記官, 將校律生, 書員—守등이 근무	
牧作廳	7	二衙 북쪽	戶長, 記官, 將校律生, 書員—守등이 근무	
藏春院	4	新果園 서쪽	기녀와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	
觀德亭	18	弘化閣 남쪽	武藝試才所	辛碩祖記, 徐居正 重謄記
望京樓	17	延曦閣 동북쪽		吳霽의 改建上樑文 전함
濟衆樓	6	城의 동문	출입구	吳霽 및 金亮洙重修上樑文
定遠樓	6	城의 남문	출입구	
白虎樓	6	城의 서문	출입구	
鐘樓	3	弘化閣 동문	동헌의 외대문(영문의 대문루)	現「守令以下皆下馬」 옆
演武武亭	10	南城 밖 1리	閱式之場	
司倉	60	西城안	곡식 보관 창고	
軍器庫	14	左衛廊 內	군기보관(자전고라고 함)	
淸霜庫	4	運籌堂 서쪽	무기 보관 창고	
火藥庫	4	新果園 북쪽	화약 보관 창고	
戶籍庫		種樓 서쪽	호적 보관 창고	
州司	3	西城 안	햇불감을 저장하는 곳	
營繕		運籌堂 서남쪽	군마의 마른 목초 보관	이원진 「탐리지」에는 9
獄	21	객사 동남쪽	감옥	
公須	18	西果園 북쪽		
榮廳	30			
軍牢廳	4			
馬房	6		마굿간	
別廳	3			
將官廳	8	把總 등이 근무		
三學廳	12	좌위랑에 在	漢生, 倭生, 譯生 등이 호적 편수	
愬廳	12	贊養軒 남쪽	座首 別監의 집무소	
軍餉庫	17			

牧假率廳	3	牧公須 동쪽			
牧公須	10	祭眉軒 동쪽			
官奴房	12	右蓮堂 서쪽			
鄉校	71		文廟		
明倫堂	12	향교 내			
東西齋	20	향교 내			
講堂	7	향교 내	教授 所處		
書院	6				
傳審堂	7				
藏修堂	9	南城 안	鄉學堂		
藏室	5	南果園	깃대의 보관		
三姓廟	25	南城 안	고·양·부의 廟		
擊臺	각 1	28所			
左衙廊	48	觀德亭 좌동쪽	羅將, 譯生, 毛匠, 藥房, 氈匠, 吹手 箭匠, 弓匠, 旗手 등 소처		「담라지」 등에는 27소 「湖南援兵」이 폐해지기 전 에는 호남원병의 거처로 사용
右衙廊	56	觀德亭 우동쪽	營吏廳, 旗牌, 軍器, 牙兵, 定甲, 知印 假率, 醫局, 武學, 馬廐 등 처		“

이상에서 볼 때 관아시설은 闕牌와 殿牌를 모셔 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向闕望拜를 하던 영주관(객사)을 중심으로 營廳인 흥화각, 제주목사의 동헌인 연회각, 그리고 판관의 동헌인 찬주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외에 목사·판관의 사적인 공간인 內衙가 있으며, 좌수·별감의 집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퇴리가 집무하던 作廳, 군장교의 將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公須廳, 죄인을 가두는 獄, 노복들의 거처인 관노방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아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觀德亭을 중심으로 주로 좌우에 치중되어 있는데, 특히 좌측에는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우측은 판관의 동헌 및 관아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III. 발골지역내 주요 관아건물의 추정

〈발골지역내 주요 관아건물로 추정되는 시설의 규모 위치 연혁〉

번호	官衙 建物名	間數	위 치 (방향)	설치연대 및 내력	용 도	비 고
1	外大門 (일명 鐘樓 耽羅布政司 鎖海樓)	18 鐘閣 3	현 입구 (弘化閣 동남 밖)	1435년(세종17)에 弘化閣 창건시 건립→ 1699년(숙종25)에 南至薰 목사가 개건	營의 외대문, 누 각위에 종을 달 아 새벽과 저녁 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닫 음. 妙蓮寺에서 만든 옛 종.	門위에는 李益泰 목사가 쓴 「海中 仙府天外雄藩」이 란 8字가 있었음.

번호	官 衙 建物名	間數	위 치 (방향)	설치연대 및 내력	용 도	비 고
2	中大門	12	외대문 북쪽		홍화각, 애매헌 의 출입구	
3	內大門	18	중대문 동북		연화각, 망경루 의 출입구	
4	友蓮堂	10	觀德亭 북쪽 弘化閣 남쪽	1526년(중종21)에 이수동 목사가 城中에 우물이 없어서 만들→楊大樹목사(재: 1592~1595)때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 끄러워서 매워 평지화 함→김정목사(재 임: 1735~1737)때에 증수하여 享儀室 로 삼고 貢獻 封進 장소로 사용.	연못	건립시에 우물 가 운데 제주도를 상 징하는 작은 들섬 을 만들어 연꽃과 대나무 심음.
5	弘化閣	9	右蓮堂 북쪽 延曦閣 남쪽	관아가 불타 없어지자 1435년(세종17)에 崔海山 목사가 창건→正統 갑인년(1494 1554?)에 증수→1648년(인조25)에 金汝 水 목사 증수→1713년(숙종39)에 방어영 으로 승격, 正衙를 別設하면서 영리청→ 1772년(영조48)에 梁世詢목사 증수→ 1829년(순조29)에 李行教목사가 개건→ 1841년에 李源祚목사가 증수 績	安撫使의 영청 →절제사의 영 청→營吏廳	고득종의 홍화각 기, 이원조의 弘 化閣 증수기 현존
6	延曦閣	上衙37 東軒14	弘化閣 북쪽 橋林堂 서쪽	1885년(고종22) 목사 洪圭가 증수	목사 正衙, 上衙의 東軒	이원조 목사의 記 전함
7	愛梅軒	8	弘化閣 동쪽	1580년에 이전 건립, 정조년간 이전에 폐지		『담라영방총람』 에는 舊基
8	橋林堂	5	延曦閣 동쪽 果園 가운데 위치	?→1743년(영조19)에 안경운 목사가 개건		
9	洗兵軒		新果園 남쪽	1717년(숙종43) 鄭碩賓 목사가 창건→ 1875년(고종12) 이희충 목사 증수→1909	군기청	
10	軍官廳	31	애매헌 동쪽	년 제주경찰서 基地로 편입		
11	鎮撫廳	7	군관청 동쪽	軍官의 所處		
12	藏春院	4	신과원 서쪽	鎮撫의 所處		일명 敎房, 妓生房
13	望京樓	17	延曦閣 동북 쪽 옆	기생과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 1556년(명종11)에 김수문 목사가 건립 →1668(현종9)에 이연 목사가 개건→ 1806년(순종6)에 박종주 목사가 개건		
14	馬房	6		마굿간		일명習馬房

이 외에 審藥房·戶籍庫, 奴婢行廊·營吏掌房·兵庫 등의 시설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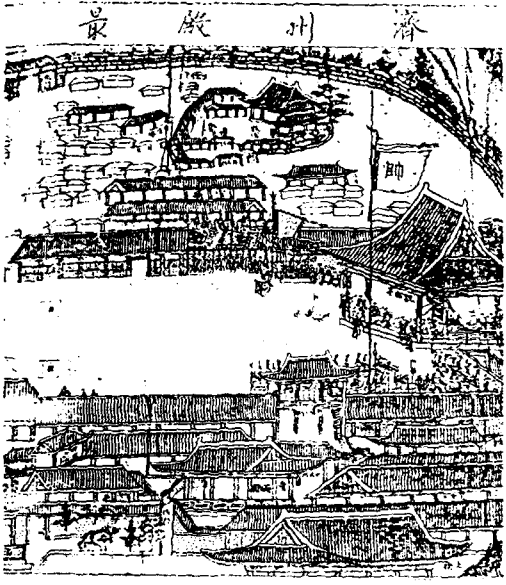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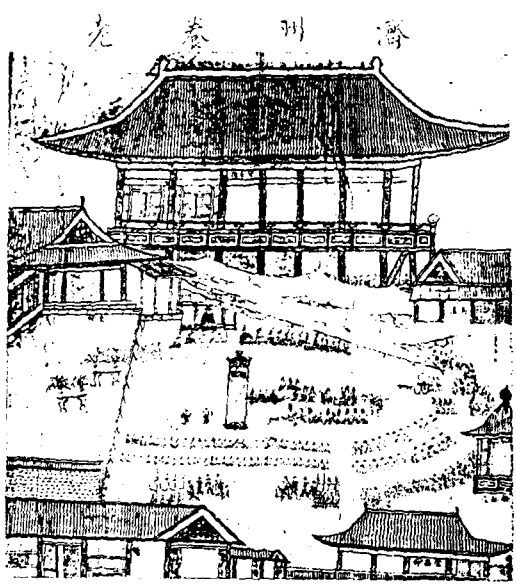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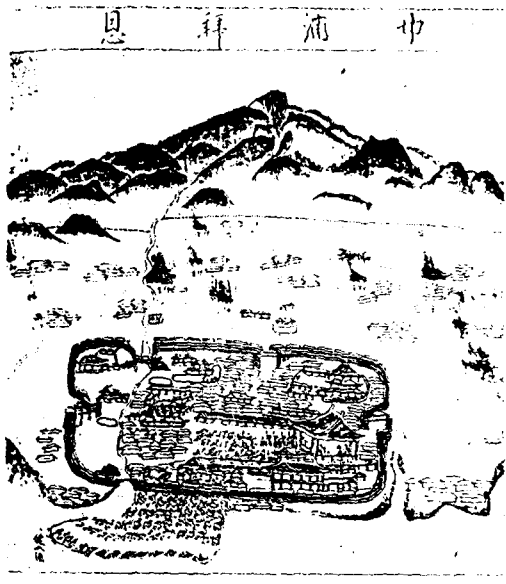
#### IV. 맺 음 말

이상에서 필자는 제주목의 관아시설의 개요와 발굴지역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관아건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제주목 관아지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일대는 탐라국 이래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다. 도민들에 대한 행정이 모두 이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통시대에는 도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이 상징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전반에는 도민의 원한이 맺힌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의 덕수궁, 경복궁, 경희궁보다도 더 의미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는 초기부터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1910년 濟州法院支廳의 전신인 濟州區裁判所를 설치하면서 弘化閣을 허물었고, 그 후 觀德亭에 대한 부분적인 말살도 진행되었다. 옛 弘化閣 터에는 아직도 일제시대의 건물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든 제주도 정치의 산물이고 島民의 魂과 恨이 교감되는 제주목의 관아지는 일제에 의해 완전히 파괴당한 뒤 아물지 않은 상처인 양, 역사적 의미가 상실된 터로서 버려져 왔다.

우리는 이 곳이 탐라국 이래 제주도역사의 중심현장이었음을 자신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이 더 이상 문화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 원형을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일대를 보존함으로써 도민의 정치·경제·문화적인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심지어 70년대 이후 제주도 전역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제주의 정신문화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도민에 의해 제주역사의 심장부에 못을 박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늦게나마 이 일대에 대한 발굴의 진행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앞으로 연차적인 발굴을 통해 史蹟公園化함으로써 도민들의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삼도〉「탐리순력도」와 「탐리방영총람」